

국제플라자 뉴스





공익재단법인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880-0805 宮崎市橘通東4-8-1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 Tel: 0985-32-8457 Fax: 0985-32-8512 Homepage: https://:www.mif.or.jp E-mail: miyainfo@mif.or.jp 개관시간: 오전10시~오후7시 (화요일~토요일) 휴관일: 일·월·공휴일, 연말연시 (12월29일~1월3일)

국제 이해 강좌 ~자메이카 편~ 휴가시 ※무료·사전 신청 필요



<자메이카 요리교실 yummy한 치킨 펌킨 수프를 만들자♪>

자메이카 출신으로 휴가시에 거주하고 있는 린다 씨와 향신료를 가미한 치킨 펌킨 수프를 만들지 않으실래요? 수프를 끓이는 동안 자메이카라는 나라와 언어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일 시:12월20일 (토) 11:00~14:00 **◇장 소:** 휴가시 중앙공민관 조리실

◇강 사: Lynda Gay 씨

◇정 원: 18명 (선착순) 초등학생은 보호자 1인 동반

◇참가비:무료

◇신청 방법: 아래 2차원 바코드 또는 URL보다 신청해 주세요.

전화, Email로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https://forms.gle/NHEpN2ocqjhCtyTL6

◇마 감: 12월 6일(토)

◇신청·문의: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외국인을 위한 일본 전통문화 체험강좌 ※무료·사전 신청 필요



1월17일(토) 13시부터,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에서 현내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일본에서 자생하는 이끼를 사용한 '이끼 테라리움' 만들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겠습니다.

◇신청: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외국인 주민 대상 방재 세미나 ※무료·사전 신청 필요

여섯 개의 부스를 돌고, 스탬프를 모아 경품을 받자!

◇일 시:1월24일(토) 13:00 ~15:00

◇장 소:미야자키현 방재청사 74호실, 75호실 33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다치바나도리히가시 1-9)

◇대 상: 미야자키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내 용:재해별 행동의 다른 점, 재해정보 애플리케이션, 방재

용품, 피난소에서 지내는 법 등

◇정 원: 18명 (선착순)

◇참가비:무료

◇ 신청방법 :이름, 국적, 연락처(회사 이메일로도 가능)을 구글 폼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https://forms.gle/HMTjaJsFGJY6HV6X6

◇마 감: 1월 10일(토)

◇신청·문의: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국제 후레아이 챗트 ※사전 신청 필요

현 국제교류원 또는 외국인 자원봉사자와 영어·중국어·한국어로 이야기합시다!

<영어>

◇일 시: 1/10, 1/17, 1/31, 2/7, 2/14, 2/21 토요일

10:30~11:30 총 6회

◇정 원: 10명

◇마 감: 12월 20일(토)

<중국어>

◇일 시: 1/13, 1/20, 1/27, 2/10, 2/17, 2/24 화요일

18:00~19:00 총 6회

◇정 원: 5명

◇마 감: 12월 23일(화)

◇대 상: 원어민의 중국어를 듣는 연습을 하고 싶은 사람

<한국어>

◇일 시: 12/4, 12/18, 1/15, 1/29, 2/12, 2/26 목요일

18:00~19:00 총 6회

◇정 원: 5명

◇마 감: 11월 20일(목)

☆대 상: 각 언어에 있어 일상회화가 가능한 분

☆장 소: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

☆수강료: 찬조회원 학생 1,000엔(6회)

비회원 3,000엔(6회)

중학생 이하 500엔(6회)

☆신청방법: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희망 언어를, 방문,

전화 혹은 이메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응모가 많을 때는 처음으로 수강하는

분을 우선)

☆신청·문의: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히나타 일본어 나비!

'히나타 일본어 나비'는 미야자키현 내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 주민과 일본어 학습을 지원하고 싶은 일본인 주 민을 위한 포털 사이트입니다.각 시정촌 등에서 실시되고 있 는 일본어 강좌나 학습 지원자 양성 강좌 등의 활동을 게재하 고 있습니다.부디 활용해 주세요

https://hinatanihongo.mif.or.jp/korean/







◇문 의: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국제교류원과의 담소회♪ ※무료・사전 신청 필요

일본어나 외국어로 현의 국제교류원과 즐겁게 이야기해요.

★영국에서 온 캐서린 씨와 함께 이야기합시다!

◇일 시: ①11월14 일(금) 15:00~16:00 (일본어&영어)

②11월21 일(금) 18:00~19:00

◇마 감: ①11월7 일(금) ②11월14일(금)



★싱가포르에서 온 유딩 씨와 함께 이야기합시다!

◇일 시:11월18일(화) 16:00~17:00 (일본어&중국어)

◇마 감:11월11일(화)

★한국에서 온 해정 씨와 함께 이야기합시다!

◇일 시:①11월13일(목) 15:00~16:00 (일본어&한국어)

◇마 감:①11월6일(목)

◇장 소: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 미야자키 국제플라자 ◇정 원: 각 4명(참여 횟수가 적은 사람을 우선한 선착순) ※신청은 전화, 메일 또는 방문 접수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문의: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미야자키 외국인 지원 센터로부터의 안내문 출입국재류관리청 제작 <생활 오리엔테이션 영상> 공지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여러분께>

생활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일본의 규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신청 등 일본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절차
-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도망치면 좋을지
- 일본의 쓰레기 배출방법
- 나라마다 다른 자동차 규칙
-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7개 국어 영상으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부디 봐 주세요!

https://www.moj.go.jp/isa/support/coexistence/04 00078.html

영어 챗트 자원봉사자 모집!

국제 후레아이 챗트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문의해 주세요.

◇일 시: 앞면을 참고해주세요.

◇장 소: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

◇참가 조건: 영어로 대화에 지장이 없는 분 ※모국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문의: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일본어 자원 봉사 소개 ※사전 신청 필요 •무료

미야자키현 거주로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은 분께 일본어 자원봉 사자를 소개합니다. 학습 장소와 시간, 내용은 학습자와 자원봉사자가 정합니다.

◇대 상: 현 내 거주로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은 분

◇신청·문의: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 미야코노조시 >



월드 페스타 in 미야코노조 2026

◇일시: 2월 8일(일) 12:00~16:30

◇장소: 미야코노조시 종합문화홀 (MJ)

◇이벤트 내용: 세계의 나라와 지역의 소개, 국제교류, 국제

협력 등의 패널 전시, 외국인 참가자들의 무대공연 등

◇참가비: 무료

◇문 의: MIA (일반사단법인 미야코노조 국제교류협회) Phone: 0986-23-2295 E-mail: mia@btvm.ne.jp



















테게테게 미야자키 라이프

《 미야자키·한국 페스티벌, 그 후 》





국제교류원 양해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 달 전부터 플라자뉴스를 통해 소개해 드렸던 '미야자키·한국 페스티벌'에는 방문해 주셨나요? 행사가 드디어 끝나고, 그 감상을 적어보려 합니다.

1.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행사 당일은 미야자키현과 문화원은 물론, 자원봉사자 30명, 각 기관 및 부스 관계자, 공연 출연자 등… 무려 100명이 넘는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힘이 모여 이번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2. 한국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

당일 행사에는 약 1.000명 정도가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국 문화'라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열린 행사였지만, 이렇게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주실 줄은 몰랐어요. 행사장에서 보이는 반짝이는 눈빛들, 표정 속에서 모두 한국 문화를 좋아해 주시고 있구나, 하는 행복한 확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예상치 못한 변수들, 그리고 조금의 아쉬움

행사 며칠 전, 갑작스럽게 들려온 태풍 소식. 다행히 당일 큰비나 강풍은 없었지만, 태풍이 오지 않았으면 더 많은 분이 와 주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렇지만 아쉬움보다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에서 정말 즐거웠다, 한국에 다녀온 기분이었다. 한국 문화를 더 좋아하게 됐다는 감상이 들려올 때마다 보람은 더더욱 커져, 그동안의 피로는 날아가고 정말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마음속을 차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최고로 행복한 하루였어요.

타국인 일본에서 대규모 행사를 기획, 준비하고 운영한다는 점에 부담감도 많았던 반년이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도움 덕에 무사히 이벤트가 마무리되었고, 미야자키와 한국을 잇는다는 국제교류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행사에 직접 와주신 분들도, 응원 메시지를 주신 분들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미야자키현의 국제교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